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가 이 땅에 정착한 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역사와 정신에 큰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개인에게는 참된 삶의 지침이 되었고, 나라에는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라크 전이 끝나 가면서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부시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와 이로 인한 갈등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처님은 온갖 욕심을 버린 가운데 중생을 위한 해탈의 세계를 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고집하기보다는 모두를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가 살아 숨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족을 부처님처럼’, ‘이웃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올해 봉축 표어에 담긴 뜻처럼 서로 존중하고 크게 화합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불자님들의 정진과 기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국민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